

‘회색 코뿔소’와 자영업자, 서민



이정혁
西村브리핑

기준금리가 또 올랐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연 1.25%로 높였다. 작년 8월과 11월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5개월 새 0.75%포인트가 인상됐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1.5%로 올려도 건국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올해 적어도 한 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선 물가를 잡아야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를 찍은 이후 11월 3.8%, 12월 3.7%를 기록했다. 한은은 금리를 올려서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 물가를 억누르겠다는 것이다.

한은만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다. 미국 소비자물가는 지난 달 7%나 올랐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만 가만히 있으면 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출렁거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게 살림과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불과 6개월 전 연 3%대에서 현재 5%대까지 치솟았다. 한은 분석대로라면 지난 1년 동안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전체 대출 이자 규모는 전체 12조 8000억원, 1명당 이자액은 64만 4000원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은행 대출 창구에선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고 있어 이자 부담은 한은 추정치보다 훨씬 크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72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대한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 6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3월엔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연장도 종료된다.

올들어 우리나라에도 ‘회색 코뿔소 경고령’이 내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회색 코뿔소”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들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우리가 직면한 ‘회색 코뿔소’로는 가계부채, 물가상승, 미국 연준 양적긴축, 코로나19 확산 등이 꼽힌다. ‘회색 코뿔소’는 코뿔소가 몸집이 커 멀리 있어도 눈에 잘 띄지만 정작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 큰 위험에 빠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다.

여러 ‘회색 코뿔소’ 중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가계부채 코뿔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빚은 약 1845조원에 이른다. 이미 한국 경제 한 해 경제 규모를 뛰어 넘었고 증가 속도, 총량 부문에 있어서도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황이다. 문제는 가계 부채 코뿔소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란 ‘화살’을 쏘더니 대출 이자 부담이라는 또 다른 코뿔소를 불러들였다는 점이다. 가계 부채 관리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은행 돈으로 어렵게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를 얻은 서민들의 대출 부담 고통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실성 있는 금융 정책이 필요할 때다.

/파이낸스&마켓부 대기자 ljh@metroseoul.co.kr

중대재해법 1호 어디? ‘공수처’ 데자뷰



기지수첩
원승일
(정책사회부)

건설사 중 일부는 오는 27일부터 설 연휴까지 모든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1호’가 될지 몰라 우려해서다.

일부 기업 중에는 대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위 ‘바지 사장’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건 아닌데”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달리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근무 중에 노동자가 사망

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에 사업주 처벌을 명확히 한 것인데 취지는 노동자 산재 예방에 원천인 대표부터 책임을 지라는 데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후진적 산재 대응을, 선제적으로 바꿔보자는 거다. 노동자 사망을 막으려면 대표가 작업 전에 기본 안전수칙부터 챙기라는 의미다. 그런데 경영진들의 관심은 죄다 ‘처벌’에 있다.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을 피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법 규정이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또, 안전·보건 의무에 따라 ‘안전 담당 이사’를 별도로 두면 대표가 처벌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산재 예방이 아니라 산재 발생 후에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래서는 법 시행 후에도 노동자 사망 산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2020년 4월 경기 이전 물류 창고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숨진 사고가 계기였다. 그런데 올해 광주에서 또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해 6월 노동자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재개발사가 붕괴의 상흔이 채 가시기 전이다. 올해 출범 1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대 관심도 ‘1호 사건’이 무엇이나였다.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직권남용 척결이란 공수처 설립 취지보다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공수처는 “왜 존재하나”는 비판에 폐지론마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수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won@

오늘의 운세 1월 21일 (음 12월 19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성질대로 하다가 복을 내치지 않도록, 48년생 평소 예의바른 행동이 작은 허물을 덮어 준다. 60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하게, 72년생 투자와 적선을 구분하고 행동, 84년생 작은 것에 감사하다보면 위상이 저절로 커져간다.
- 소** 37년생 버리지도 못하고 정리도 못 하는 우유부단함, 49년생 분실 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주의, 61년생 지나친 욕심은 좋은 기회를 놓친다, 73년생 기쁨이 해갈되듯이 일이 풀림, 85년생 여럿을 위해 중심을 세워 원망 듣지 않도록.
- 호랑이** 38년생 사람들이 좋아하면 신명들도 좋아한다, 50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나 오히려 손해를 본다, 62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음주는 주의하도록, 74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 각보다 많다, 86년생 같은 또래 오피와의 거리가 순탄하여 서로이다.
- 토끼** 39년생 애정사로 혼을 빼놓는 것 같은 하루이다, 51년생 고집을 세우면 식구들도 외면, 63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는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야한다, 75년생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넘친다, 87년생 일이 어려우나 이웃사촌이 도와준다.
- 용** 40년생 욕심으로 재원이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52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 64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76년생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 88년생 설계와 디자인 연구를 하도록.
- 뱀** 41년생 늦게 찾아온 사랑을 빚자한 짐착에 빠지지 않도록, 53년생 매화가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65년생 업무 관련 약속을 소중히 해라, 77년생 의견통일이 어려워도 중심을 잡자, 89년생 부모님의 방문으로 하루가 즐겁다.
- 말** 42년생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공기도 사랑도 있기에, 54년생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 감사함, 66년생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어야 한다, 78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90년생 남의 단점을 꼭 꼬집어 내면 예상외로 나도 신음.
- 양** 43년생 사랑하되 산뜻하도록, 55년생 돈에 대해서 가족에게 상의를 청하라, 67년생 도전할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79년생 예술적인 일을 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91년생 이익 앞에서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자중해라.
- 원숭이** 44년생 사색을 좋아하니 고독함도 즐겁다, 56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밟고 올라선 내 밭, 68년생 너무 방만하면 위험에 빠지기 쉽다, 80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상사에게 공손히, 92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어도 좋겠으나 생각하라.
- 닭** 45년생 심장에 충격을 주는 심한 운동은 심장마비를 유발, 57년생 자녀의 특기를 잘 살펴봐라, 69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과소비를 주의, 81년생 행복을 얻기 위해 지나친 욕심만 줄이면 기쁨은 하루, 93년생 작은 것에 감사한날.
- 개** 46년생 단심조만고(丹心照萬古)로 부끄러움이 적다, 58년생 주변 정리로 심리적 안정을 취하라, 70년생 큰 그림을 그리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82년생 두드려라, 열릴 때가 온다, 94년생 원활치 못한 체세로 구설수가 있으니 동료와 말조심.
- 돼지** 47년생 비위야 채워질 수 있는 평범한 진리, 59년생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과 재내도록, 71년생 기다리던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저어라, 83년생 보이지 않는 손뼉 막 짚는 가시로 고생, 95년생 나무에 햇볕이 드는 양상으로 진취적인 기상이니.



김상회의四季 화, 일상의 수행

불교에서 ‘화’라는 개념은 성질을 참치 못해 폭발하는 화외에도 불평이나 불만을 포함하여 슬픔 비탄 후회 질투 시샘 등 그 스펙트럼이 넓다. ‘화’는 자기를 태우고 남도 태우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한다. 슬프면 애간장이 녹아내린다는 전통속설은 의학적으로도 인정되는 증상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참으면 병이 되니 적당히 화의 감정을 발산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이는 긍정적으로 화의 감정을 소화시킬 수 있는 대화나 소통을 가지라는 의미이지 화가 난다고 상대방에게 그 감정을 표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나아가 화의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활동이나 생각의 전환을 갖는 지혜를 개발하라는 조언일 것이다. 불교적 마음치유 관점에서는 자신의 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울 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것이 요즘 많은 공감과 얻고 있는 명상이다. 명상을 좀 더 깊게 개발하면 위빠사나수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빠사나수행은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수행방법으로 사마타수행과 함께한 수행법이다. 단어의 뜻은 “다양하게 관찰한다.”라는 뜻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승불교에 있어 주류 수행방법인 조사선에서 지관수행(止觀修行)이라고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조합한 단어이다. 석가모니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던 수행전통인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계승하여 오던 남방불교가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근간에 많은 단체에서 명상치유라는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도 보게된다.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 마음의 경향성을 닦아 나가는 좋은 방법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명상은 화를 다스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의 놀이터**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정답

1	8	2	6	9	7	4	5	9
6	7	9	5	2	8	2	9	1
2	9	5	9	1	7	6	8	2
8	9	2	1	6	2	5	7	9
2	1	9	7	6	5	8	9	6
7	5	6	9	8	9	1	2	2
9	6	7	2	5	9	2	1	8
5	2	8	2	9	1	9	6	7
9	2	1	8	7	6	9	2	5

간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86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970호	